

# 우리는 예비 결핵환자

글 □ 정성령(경남 창원시 봉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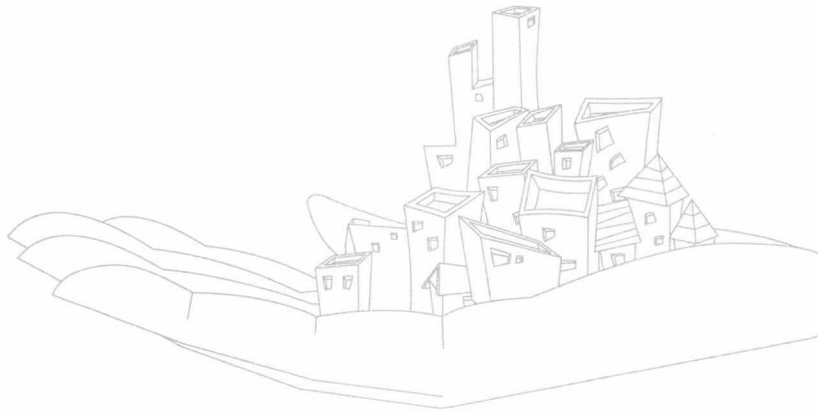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2학년 봄, 내 나이 18살이었다.

감기 증세로 몇 달간 기침과 고열을 동반한 증세가 계속되었다. 동네 근처의 병원에서 매주 감기약을 먹으며 치료하였지만 오히려 살은 더 빠지며, 고열증세는 더 심해지고 낫질 않았다.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결핵으로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폐에 결핵균이 이미 다 퍼져서 2기에서 3기 정도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때는 오히려 담담했다. 18살의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 사나이기에.... 흥! 이딴 결핵? 약만 먹으면 금방 낫는다, 고 생각했다.

약을 보름치 정도 지었다. 결핵약을 먹으면서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구토증세가 나며, 살은 짹짹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눈에 황달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가보니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갔다며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큰 병원에 갔다.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선생님께서도 결핵이 걸렸는지 아닌지는 이 사진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깨끗하다고 했다.

나와 가족들은 나의 건강한 체력과 긍정적 마인드 때문에 짧은 기간에 다 나았다고만 생각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몸은 피곤하고 나른했지만 설사를 자주 하는 것 외에는 그럭저럭 살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난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잦은 설사로 인한 탈수증세, 고열로 인한 쇼크 때문이었다.



2005년 9월 2일 새벽이었다. 이 날 이후 한 달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나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날 새벽에 내가 입을 꼭 다문 채,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팔과 다리는 죽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고 한다. 팔뚝질을 하며 마치 사람이 죽기 전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고 하였다. 난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 병원에서는 뇌염 같다고 했다. 가족들은 치사율이 60%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 좀 더 큰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척수를 빼내어 검사해보니 결핵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더 이상 결핵균은 없는 줄 알았는데, 죽었던 결핵균이 다시 살아 척추를 타고 뇌로 올라갔던 것이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결핵균이 내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나와 가족들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는 동안 깨어나도 장애가 올 거라고 의사선생님은 이야기했다고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고열과 높은 간수치로 계속 입원해 있어야만 했다. 또 복통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와 X-RAY, CT 검사를 해보니 장에 염증이 나타나서 수술하자고 하였다. 수술실에 들어갔다. 염증 부분을 시술하려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시술을 중단하였다. 의사선생님들은 의아해하며 다시 장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재검사 후 장은 깨끗했고, 의사들은 다시 한번 쓴웃음을 지었다. 병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열은 열대로, 복통은 가시지 않았고 독한 결핵약으로 인하여 간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폐와 장, 머리 등 안 해본 검사가 없을 정도로 온 몸을 종합 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뇌에 MRI를 찍었는데 판독 결과 머리 구석 구석 숨구멍까지 흰색 반점이 퍼져있었다. 흰색 반점은 물론 죽었다 살아난 독종 결핵균이다. 병원에서는 수술로는 손을 쓸 수 없고, 오로지 약물치료만 해야 하는데 간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 도저히 힘들다고 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나오는 결핵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3이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결핵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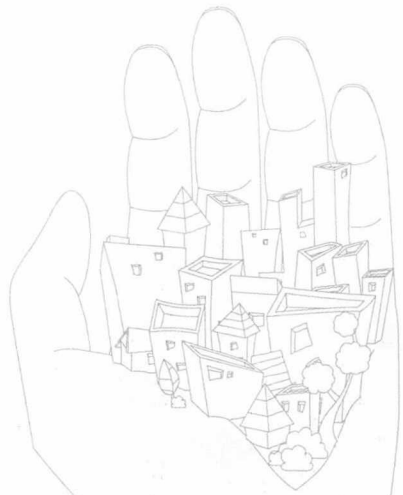
아마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이 이런 것일 게다. 사면초가, 약도 들지 않고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그저 기적만을 바랄 뿐이었다.

가까스로 간수치를 떨어뜨리고, 약을 바꾸고 바꾸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찾아 투약하였다. 폐결핵 걸렸을 당시 1차 약은 다시 처방할 수 없었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약을 찾아 약 강도를 올리거나 투약하자 서서히 적응력이 생기며 없던 입맛도 돌아와 식욕이 왕성하던 청년의 나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2005년 하반기 퇴원을 하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결핵약은 아직까지 복용 중에 있다. 의사선생님말로는 폐결핵은 약 복용이 6개월 이상이지만 난 뇌결핵이기에 최소 1년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하며 때에 따라선 연장복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나의 상태는 처음에 의사선생님이 예견하셨던 장애는 없으며 약간의 기억력 감퇴와 말이 좀 어눌한 정도이다. 하지만 난 감사한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내가 이렇게 숨쉴 수 있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니 말이다.

의사선생님은 나를 보며 얘기하신다. 이 병원이 생긴 후로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들어온 환자도 없었고, 치료를 받아 이렇게 호전되어 나가는 환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놀라신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나와는 결핵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3 이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결핵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약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예비 결핵 환자”이다.

결핵이라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예방만이 최선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속출한다는 보도를 들을 수 있다. 나와 같은 환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결핵에 관한 홍보와 계몽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있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예방이 최선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이 병을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되 자신의 임의대로 생각하여 치료하지 말고 무조건 전문적인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해서 2번 결핵에 걸리게 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하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의 병이기에.....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불조심 표어가 있다. 이 말은 불조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결핵균에도 해당된다. 죽은 결핵균도 다시 봐야 한다.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방심하고 소홀해지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결핵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믿고 싶다. 이 세상에서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속히 쾌유되어 건강하게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한다. ♣